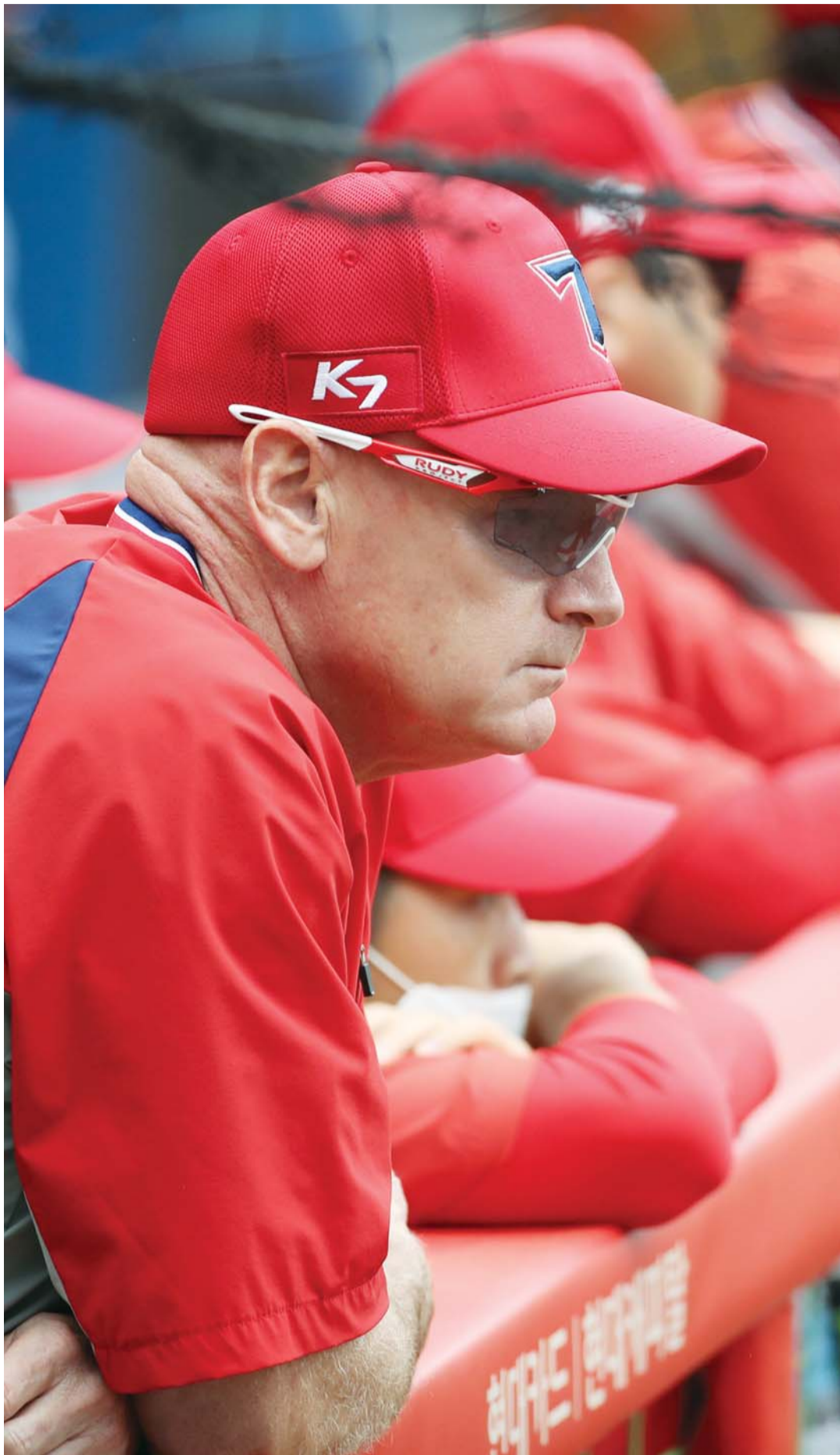


KIA 상위권 가는 길, 잔루를 지워라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이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LG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T 타이거즈 전망대

12승 12패 5할 승률로 5월 마감

시즌 잔루 1위... 들쭉날쭉 득점

롯데와 3연전후 수도권 9연전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잔루를 지워야 한다. 5할 승률로 5월을 끝낸 KIA 타이거즈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를 통해 6월을 연다. 앞서 KT 위즈, LG 트윈스를 만난 KIA는 연달아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2승 4패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KIA의 5월은 12승 12패, 딱 5할에서 끝났다. 5연승을 내달릴 때의 기세는 아니지만 선발진이 그래도 자리를 지켜줬던 만큼 지난주 패배들이 아니다. 잔루가 KIA의 발목을 잡았다. KIA는 안정된 선발진을 바탕으로 탈삼진 1위(191개), 선발평균 자책점 2위(3.78) 등을 기록하고 있다. 타격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 지난주 6경기에서는 58개의 안타와 24개의 볼넷을 골라냈다. 7개의 홈

런도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도 깨어야 득점'이다. 안타와 볼넷 그리고 상대의 실책을 잘 못지 못하면서 6경기 득점은 26점에 그쳤다. 5월 27일 KT전에서는 영봉패를 당했고, 5월 30일 LG전에서는 10득점을 하는 등 극과 극의 모습도 여전했다. KT 테스파이네에 막혀 영봉패를 기록한 날에도 1-2회 4명의 주자가 출루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초반 위기를 넘긴 테스파이네는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집중력 떨어진 공격으로 KIA는 올 시즌 잔루 1위를 달리고 있다. 24경기에서 홈에 들어오지 못한 주자는 198명. 경기당 평균 8.3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득점을 만들기 위한 집중력은 물론 세밀함도 부족하다. 시즌 전부터 화력은 KIA의 약점으로 언급됐다. 그만큼 '한 루'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득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루, 희생번트, 대타 등의 카드가 있지만 KIA는 이 부분에서 모두 기록이 좋지 못했다. 올 시즌 KIA의 도루 성공률은 71.4%로 전체 4위,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시도 자체가 많지 않았

다.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14차례만 도루를 시도했다. 희생번트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6차례 희생번트로 주자 진루를 이뤘지만 7번은 실패로 끝났다. 희생번트 성공률은 46.2%로 전체 9위다. 무엇보다 경기 흐름을 바꿔줄 강력한 대타가 없다. 올 시즌 KIA의 대타 타율은 무려 0.059까지 떨어진다. 물론 전체 최하위 기록이다. 올 시즌 새로 타이거즈 지휘봉을 든 윌리엄스 감독은 '데이터 야구'에 능통한 지도자로 꼽힌다. KBO리그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리그 적응과 내부 파악은 끝났다. 이제는 KIA의 부족한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변화와 전략이 필요하다.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전력 재배치가 6월 성적의 바탕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선수들은 새로운 경쟁의 시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안방에서 롯데를 상대로 새 판을 구성하게 될 KIA는 주말 수도권 9연전 일정에 돌입한다. 두산 베어스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KT 위즈 그리고 SK 와이번스와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KIA가 시즌 첫 스윕을 만들었던 롯데를 상대로 뜨거운 6월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140승, 나지완 600 4구 기록 도전... 각각 1승, 3개 남아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과 나지완이 각각 140승과 600 4구에 도전한다. 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KIA가 새로운 한 주를 연다. 이번 주에는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과 나지완이 기록 쌓기에 나선다. 양현종은 역대 5번째 140승을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통산 승수에서는 이미 양현종이 5위에 올라있다. 양현종은 지난 5월 22일 SK원정에서 6이닝 1실점(1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통산 139승을 기록, 공동 5위에 있던 배영수를 따돌리고 다승 단독 5위가 됐다. 5월 28일 KT전에서 5회까지 11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고전했던 양현종은 롯데를 상대로 앞선 부진을 털어내고 140승까지 동시에 올리겠다는 각오다. 지난주 타이거즈 최다 홈런 타이틀을 차지한 나지완은 600 4구를 노린다. 나지완은 지난 5월 28일 KT원정에서 소형준을 상대로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올 시즌 개인 4호이자, 개인 통산 208홈런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나지완은 김성한(207개)을 따돌리고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자로 등극했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주인공이



양현종



나지완

타이거즈 소속으로 기록한 홈런 기록으로는 나지완, 김성한에 이어 장성호(195개), 이종범(194개), 홍현우(173개), 이병호(169개)가 뒤를 잇고 있다. KBO 전체로 보면 208홈런은 홍성흔과 함께 공동 23위의 기록이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주인공이

기도 한 나지완은 '파워'는 물론 '눈아구'도 뛰어난 선수다. 기다렸던 208홈런을 넘긴 나지완은 통산 40번째 600 4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3개의 볼넷을 골라내면 나지완의 600 4구가 기록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일 재개 PGA 첫 대회는 '별들의 전쟁'

슈와브 챌린지 랭킹 20위내 15명 출전

3개월여 공백 끝에 재개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격한다. PGA 투어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개막하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 세계랭킹 20위 내 선수 가운데 15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3월 중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끝난 뒤 코로나19 때문에 시즌 일정을 중단했다. 3개월 정도 대회를 치르지 않은 PGA 투어는 11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CC에서 개막하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로

2019-2020시즌을 재개한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해 2위 온 램(스페인), 3위 브룩스 켈카, 4위 저스틴 토머스, 5위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톱5'가 총출동한다. PGA 투어는 "이 대회에 세계랭킹 5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나오는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랭킹 1위 임성재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출전하지만 PGA 투어는 이 대회부터 앞으로 4개 대회까지는 관중 입장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연 수입 766억원 중 96%는 후원금

장외수입 1위는 1억달러 페더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대부분은 상금이 아닌 광고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스포츠 선수 수입 현황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6230만 달러(약 766억원)를 벌어들여 8위에 올랐다. 우즈가 이 기간에 상금으로 받은 돈은 230만달러(약 28억원)로 상금 수입은 전체 스포츠 스타 96위에 그쳤다. 나머지 6000만달러(약 738억원)는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이다. 직접 광고에 출연하거나, 기업 로고나 상품명을 노출하는 데 따른 대가이기 때문에 사

실상 광고 수입이다. 우즈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96%가 장외수입으로 그가 '움직이는 광고판'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스포츠 선수 수입 총액에서는 8위지만 장외수입에서는 미국프로농구(NBA) 르브론 제임스(미국)와 공동 2위다. 하지만 우즈의 장외수입은 전성기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우즈는 2009년에 무려 1억 500만달러(약 1290억원)를 장외에서 거둬들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장외 수입 1위는 1억달러(약 1229억원)를 벌어들인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차지했다. 페더러도 대회에서 따낸 상금은 630만달러(약 77억원)에 그쳐 장외 수입이 월등히 많았다. /연합뉴스

도르트문트 산초, 경고와 맞바꾼 조지 플로이드 추모 세리머니



제이든 산초(20·도르트문트)가 도르트문트와 파더보른의 2019-2020 분데스리가 29라운드가 치러진 1일(한국시간),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그의 이니셔티브에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산초는 상의 탈의와 정치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축구 규정에 따라 주심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연합뉴스